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I. 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린다.

1. 하늘 문이 열리는 삶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삶을 말한다. 성경에도 보니 하늘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다. 여러가지 예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이다.

[마태복음 3:16-17]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기뻐한다)” 이 장면은 놀랍다.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축복의 본질을 보여준다.

하늘의 축복은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다. ‘존재적 축복’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행위에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예수님의 존재는 분명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축복의 본질이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물리적 공간의 열림을 말하는가? ‘열림’은 문의 개념을 말한다.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다. 문을 열어주는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 감동. 마음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감동’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3:22]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 분명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감동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그 현장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감동의 현장은 항상 아름다운 일로 가득하다. 감동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있기까지의 이야기이다. 기독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야기, 스토리’이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을 여는 사람은 누구인가?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은 감동이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 뽕나무를 올라간 삭개오, 지붕을 뚫고 병든 친구를 내린 친구들. 감동의 현장은 언제나 하늘이 열렸다.

3. 감동의 사람- 생각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십자가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재적 삶을 통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움직임으로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라는 그릇에 담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며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바로 움직임의 영성이다. 이 때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 생각이 움직임이 되는 것이 영성이다.

실체가 없는 생각의 함정을 조심하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생각을 조심하라. 그곳에는 자기 생각으로 오는 비판과 판단만이 난무할 뿐이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미래는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사람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